

다음 樂良東寺의 樂良에 對하여서는 그것이 漢武帝 設置의 樂浪郡에 서 나온 이름임에 對하여 아무도 딴 생각이 없을 것이다. 樂浪郡은 西晉의 建興元年(三一三)에 高句麗에게 滅亡 當한 後로는 西遷하여 遼西地方의 慕容氏에게 歸附하였으며 지금 錦州府境內에 治所를 두고 있었다. 이 西遷 樂浪郡은 그후 前秦 後燕 北燕時代를 거쳐 다시 北魏에서 東魏 때까지 그 餘命을 이어 나가고 왔는데 지금 魏書 地形志를 보면 그 郡名이 두군데에 記錄되어 있다. 하나는 南營州에 所屬되는 領郡中에 또 하나는 營州에 所屬되는 領郡의 하나로 記錄되어 있다. 번거로운 考證은 省略하겠으나 南營州는 北魏末에 營州가 契國에게 占領되었을때 關內로 避하여 지금 保定府 近處에 寄治하였을 때의 이름이니 兩者는 원래 同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 南營州와 營州條下에 보이는 樂浪郡은 樂良郡으로 의여져 있으며 漢書以下 十六國疆域志에 이르기까지 常用되어 있는 樂浪의 浪字와는 다른 良字로 만들고 있다. 이 樂良의 이름에 對하여서는 魏書의 撰者는 營州條下의 樂良郡에 來註를 따라 「前漢武帝置二(前後) 漢晉曰樂浪 後改罷 正光末復治連城」이라 하여 일부러 事緣을 밝히고 있으므로 北魏時代의 郡名이 樂良이 었다는데 對하여서는 더 以上 疑心할 餘地조차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中間에 改罷되었던 樂浪(良)郡이 다시 北魏에 들어와서 復設된 時期가 正光末(五二四)이었다고 明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佛像의 造像年代를 잡는데 한가지 暗示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자면 이 佛像의 年代는 그 光背에 새겨져 있는 樂良東寺의 이름으로 해서 樂良郡이 復設된 北魏 正光末年(五二四)을 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黃壽永, 金元龍教授들이 樣式上으로 보아 延嘉七年己未歲를 西紀五三九年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매우 妥當하다는 또 하나의 根據를 얻은 結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西紀五三九年은 이미 北魏가 滅亡하고 東魏가 일어났지 六年이 되지만 樂良郡은 그보다 三年前인 東魏의 天平四年에 또다시 復置되어 存續되어 있었으므로 樂良東寺의 이름이 바로 그 樂良郡에 緣由한 寺名이 었다고 생각하는데 別로 異論을 들만한 것이 없으리라 믿는다. (樂良郡은 그후 北齊時代부터는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끝으로 彫像樣式上의 問題에 對하여 筆者의 생각을 덧붙이면 이 延嘉七年銘佛은 北魏金銅佛中에서도 所謂 正光樣式의 佛像들과 恰似한 特徵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金銅佛史上 太和金銅佛들이 最初의 빛난 時代를 가져왔으나 아직 그 特色이 不明瞭한채 다음 正光期樣式의 佛像으로 發展하여 비로소 그 樣式이 定型化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發見된 이 高句麗佛像이 그 正光佛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美國 메트러포리턴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는 正光五年銘 金銅彌勒佛立像이나 그와 함께 出土되었다는 비슷한 모습의 金銅五尊佛立像과 같은 것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들지 않을까 한다. ① 이 正光期의 佛像樣式은 그것이 뿌리깊게 成立된 河北地方이 東魏의 領域에 들어감으로서 繼續하여 비슷한 造像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역시 美國 펜실버니아大學 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는 天平三年銘 金銅彌勒佛을 보면 ② 北魏에서 東魏를 거쳐 다시 高句麗에 이르는 樣式推移를 어느 程度 把握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註

① 松原三郎 著 「中國佛教彫刻史研究」 插圖四〇、四一 및 四六頁 參照。

② 同書 一〇八頁、插圖八二參照。

正德銘甫州北岳寺銀絲香垆

黃壽永

一、前言

今年 四月 日本 東京에서 梅原末治博士를 만났을 때에 本會刊資料第

二輯「金石遺文」에서 漏落된 遺例을 問議한 바 있었다. 이때 梅原博士는 銀入糸香壇의 新例一座를 調査한 바 있었는데 在銘品이라고 함에 놀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찌기 日本에 將來되어서 古寺같은 곳에 施納되었다가 近年에 이르러 賣買되어 民間에 收藏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梅原博士는 一九六二年에 처음으로 出世하였을 당시 그 銘文解讀을 부탁 받고 調査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同氏에게 이 新資料를 알려줄 것을 懇請하였고 博士 또한 이것을 承諾하고 作別하였던 것이다. 그 후 半年이 지난 十月三日 筆者는 梅原博士로부터 航空便으로 이 香壇에 관한 資料全部(大判各部寫眞 七枚와 銘文拓文二枚 實測一枚)와 書信一通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 資料를 自由로 利用하여 解說하여도 좋다는 內容을 읽고 그 厚意에 感銘하는 동시에 未知의 새로운 香壇資料와 金石遺文의 新例入手를 무척 즐겁게 생각하였다. 이곳에 간단히 紹介하는 까닭이 또한 博士의 配慮에 의한 것을 적어서 感謝의 뜻을 표하고자 함이다.

二、形態

日本에는 高麗의 靑銅銀入糸香壇으로서는 널리 알려진 金山寺香壇以外에도 數例가 남아 있어 近年의 寺寶調査에서 알려진 것(長谷寺藏品) 또는 民間所藏品(奈良 河瀬虎三郎藏 大正四年銘 日本觀心寺傳來云)의 新例 등이 調査된 바 있었다. (圖) 그런데 이 新品은 麗代의 것이 아니라 李朝初期의 作品임에서 한층 注目된다 하겠는데 多幸이 銘文이 있어 關係知見을 고루 알 수 있음에서 더욱 貴重하다. 寫眞에서 보아 保存이



第五卷 第十號 通卷五十一號

完好하여 아무런 優痕이 없고 入糸紋도 脫落이 아니보임은 多幸한 일이다.

높이 二七cm로서 中型的의 香壇이라 하겠는데 香壇으로서의 定型을 지니고 身臺別鑄로서 結構되어 있다. 壇部는 上面에 廣緣이 달리고 그 周邊을 돌아서 圓帶가 둘러있으며 圓形身部 下面에 이르러 一段의 圓臺形 받침을 갖고 있다. 臺座는 下臺 中央에 圓形柄形이 있고 그 上端에 太細三條의 圓帶를 만들어 身部內底에서 圓釘으로서 連結지워 있다. 그리하여 形態에서는 麗代作品과 크게 다른 點이 없다 하겠으나 身部에 비하여 臺座가 短促된 것이 注目된다. 이 같은 點에서 이 香壇은 그 彫鑿의 樣式과 더불어 先行하는 麗末作을 忠實히 模範으로 삼아 造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三、銀入糸

다음에 身臺에 施工된 銀入糸의 手法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身部上緣에는 花葉文帶가 둘러있고 周緣帶의 上面과 緣端에는 각기 唐草와 雷紋이 둘러있는 바 以上은 모두 細線만으로 짜 하였다. 身部에는 四處等分하여 各各 太細圓圈을 두르고 그 안에 板狀入糸로서 梵字(𑖀𑖡𑖣𑖤)各一字를 넣었는데 그 外周는 如意頭紋으로서 周回시키고 있다. 그리고 圓圈間地에는 雲紋을 넣었고 그中 一處에만 長方位牌形을 만들어 「浦州北岳寺」의 五字를 넣었다. 下面에는 仰蓮瓣과 다시 그림으로 唐草紋을 太細兩線으로 둘러 있다.

臺座 上端帶에는 變形 雷文이 있고 그 밑으로 길게 늘어진 覆蓮瓣이 있는데 그 안에 花瓣안에 螺線을 넣었다. 다시 그 밑으로 擴大曲面에는 雷紋을 下臺 周緣에는 複緣의 唐草帶가 細線入糸로서 둘러 있다. 이와 같은 身臺의 紋樣種別과 그 配置 또한 麗末作과 大差 없으나 入糸紋樣配置에 있어 粗略한 힘이 있고 또 運線이 너무나 纖弱한 느낌이 있다. 이것은 國內에 現存하는 李朝香壇(實相寺 通度寺)과도 共通되는 點이다.

四、銘文

끝으로 銘文은 上緣 裏面 가득히 細刻되어 있는 바 主文은 內側을 둘 아 一行으로 記刻되었으며 關係人名은 緣端을 向하여 하나씩 並書되어

있다. 梅原博士에 의하여 判讀된 主文 및 拓影에 의하여 筆者가 읽은 僧俗人名은 다음과 같다.

甫州北岳寺銀糸香元亦破寺官上破用
時諸人鑰鐵收價給還出正德十一年丙子五月日醴泉□□彩上後人永世轉

重八斤二兩

李□□ 玉□鐘 池石□ 林宗秀 李世□ 金今音同 黃□□ 林莫同 伊你黃□□ 李堅林孝□ 尹俊 黃□文 黃漢京 林永壁 林仲才 黃□城 崔命山 朴茂 黃□ 林菓同 崔自□ 未乙同 申永□ 李众伊 李同 李松 黃金□ 朴□□ 金□同 □□□□□□□□ 仇 □□□□□□□□ 琴戎 柞 金□□□□□ 貴□ 訥齋 □音同 德松 □同 今同 金□末 □女猪 □合之 豆 習 金之 介 □□□□ 銀非 今伊 另升山 內□同 黃金□ 嚴同 巾伊 勿金 女□今 □元 □□

이 銘文에 의하여 이 香皖은 원래 甫州北岳寺에 施納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甫州은 醴泉의 古號이다. (東國輿地勝覽卷二十四) 北岳寺는 文獻에 아니 보이는 바 銀糸香元은 銀入絲(象嵌 香皖을 가 르키는 것이다. 亦破... 還出은 難解인 바 施主諸人이 鑰鐵의 收價를 據出하였다는 뜻인 가 한다. 正德十一年丙子는 李朝 中宗 十一年 一五一六年 距今 四五〇年前이 된다. 끝으로 入重이 八斤二兩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密陽表忠寺 所藏의 大定十七年銘香皖(國寶七五號)의 八斤과 比等하다.

이 香皖이 日本. 으로 流出된 經緯는 알 수 없으나 『옛날 日本에 將來되어 古寺(名古屋某寺)에 傳來된 것을 一九六二年에 賣出되어 坂本氏(東京 不言堂主人 坂本五郎)의 所有로 歸하였다』고 하였다. 이 같은 高古한 作品들이 日本의 古寺에서 傳來하고 있어 寺寶調査 또는 市販되고 있음은 留意할 만하다. 우리나라에 많이 傳來하지 않은 高麗佛畫佛經 등이 그러 하다. 總高 二七.五 cm 上徑 二七.一 cm 下徑 十八.一 cm

〔註〕이들은 抽稿 「高麗銀入糸香皖의 研究」(東大刊) : 「佛教學報 第一輯 一九六三·十」에 실었다.

扶餘出土의 戟

洪 思 俊

今年 여름같이 長霖가 繼續한 해도 없을 것이나 山沙汰가 나고 地面이 작거나 간 關係로 地下에 埋沒되었던 遺物이 出土 된 것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예가 去七月頃 扶餘 扶蘇山頂에 있는 泗泚樓南路邊에서 靑銅製 「戟」이 出土된 것이다. 그 形態는 〇形으로 中央部에 左와 右에 一·五 cm 間에는 가로 一 cm 縱 五 mm의 矩形孔이 上下로 뚫리고 있다. 그 矩形孔에는 무쇠가 녹이 슬어 끼어있는 것이다. 前面으로 볼 수 있는 面에는 圖面과 같은 凸凹帶가 있으며 後面에는 맞맞하게 되었다. 精密하게 만들어진 品으로 보거나 特히 靑銅製임을 보아서 百濟國이 滅亡하던 唐의 兵機로 推測되는 것이다.

扶蘇山이 百濟王都의 宮苑으로 認定되는 山에 特히 送月臺(지금 泗泚

